

後百濟 健瓏政權의 禪僧 정책

- 健瓏의 선승 포섭과 그 의도 -

김성배*

목 차

- | | |
|-------------------------------|-----------------------|
| 1. 머리말 | 4. 신라로의 진출 모색과 후백제 선승 |
| 2. 무진주 시기 健瓏의 선승 포섭과
그 의미 | 정책의 한계 |
| 3. 서남해 선승 주석 의도와
그 영향 | 5. 맺음말 |
| | 참고문헌 |
| | <Abstract> |

국문초록

健瓏은 후삼국의 세력 난립 속에서 서남해를 기반으로 세력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라도 전 지역과 충청도 일부 지역을 아우르는 국가를 성립시켰다. 그가 수립한 후백제 정권은 여러 후삼국 초기 세력 가운데 그 세력이 강력했으며 가장 먼저 세력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서남해 지역에서 크게 융성하고 있었던 선종 산문들을 적극적으로 포섭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健瓏의 선종 세력 확보는 구체적으로 선승에 대한 포섭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후백제 국가성립에 주요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후백제의 선종과 관련된 연구는 후삼국에 대한 연구와 함께 이루어져 왔다. 그렇지만 사료의 부족으로 인해 연구가 단편적으로 이루어진 경향이 있다. 그리고 선종 관련 연구가 주로 선승비에 의지해야 했기 때문에 선승 개인의 일대기에 치중한 연구와 해당 지방 세력 혹은 국왕과의 관계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경

* 불교문화재연구소 연구원, E-mail: qoqo10@naver.com

향 속에서 견훤과 관련된 선승 연구 역시 선승이나 산문에 대한 고찰이 주된 논의였으며 견훤에 대한 고찰은 부차적으로 이루어졌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연구 경향을 극복하고 견훤의 입장에서 선승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가 선승들을 포섭한 의도와 나아가 후백제의 선승 정책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견훤이 자립하는 기반이 되었던 서남해 일대는 일찍부터 선종 산문이 자리 잡은 지역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신라 왕실의 지원을 통해 성장하였기 때문에 신라의 영향력도 여전히 남아있던 상황이었다.

선종 산문은 후백제뿐만 아니라 후삼국에서 중요한 세력 중 하나였다. 견훤이 선승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당시 후백제의 상황과 맞물려 있었다. 특히 선승과 관계를 맺은 주체인 견훤의 의도는 후백제의 선승 정책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견훤을 중심으로 선승과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견훤의 선승 정책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다.

주제어 : 견훤, 후백제, 후삼국, 선승, 왕건, 사무외대사, 신라

1. 머리말

新羅末에 여러 지방 세력이 할거하게 되면서 후삼국이 정립되었다. 그중 後百濟는 후삼국 시대에 단기간에 국가의 기반을 갖추었다. 후백제의 건국자인 甄萱은 서남해 防戍軍 裨將으로 신라 전역에서 일어나게 된 반란 속에서 빠르게 세력을 불리고 국가를 성립하기에 이른다. 견훤이 영유했던 후백제 지역은 下代부터 선종 산문이 꽃피었던 선종의 요람이었다. 이러한 선종 산문은 반신라적인 성격을 띠고 있던 세력도 있었으며, 반대로 신라 왕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세력도 존재했다.

武珍州를 점령한 이후부터 이러한 선종 산문들의 이합집산을 극복하고 후백제라는 국가를 설립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선종 산문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곧 해당 지역의 유력 세력과의 연결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즉 선종 산문과의 연결은 그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견훤이 확보한 지역은 단순히 百濟古地가 아닌 후삼국의 군주들에게 지역 세력을 통합하는 모델 중 하나를 제시한 것이다.¹⁾

1) 趙仁成, 1991, 『泰封의 弓裔政權 研究』,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07, 『태봉의 궁예정권』, 푸른역사.

후백제와 선종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 연구들은 후삼국에 대한 고찰과 함께 계속 이어져왔다. 초기 연구는 후삼국의 佛敎를 다루면서 단편적으로 이루어졌으며²⁾ 특히 弓裔와 健甌의 彌勒信仰과 관련되어 논고가 작성되었다.³⁾ 그리고 健甌의 사상적 기반이 미륵신앙 이외에도 선종에서 비롯되었음도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후삼국 시대의 유력한 선종 산문이었던 桐裏山門의 선승인 慶甫에 대해 다루면서⁴⁾ 후백제 선종 연구가 부각이 되었다.⁵⁾ 그리고 健甌이 자신의 영토인 충청도와 전라도 일대에 흩어져 있던 성주산문이나⁶⁾ 獅子山門과⁷⁾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이 소개되었다. 그리고 전북 남원의 실상산문이 健甌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점도 『片雲和尚浮圖』를 통해 확인되었으며⁸⁾ 이를 통해 실상산문이 후백제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사찰이라는 점도 다루어졌다.⁹⁾ 최근에는 후백제와 관련을 맺었던 선승들에 대해 새롭게 부각된 연구도 제시되었다.¹⁰⁾

앞서 다룬 연구들은 후백제 선종과 관련하여 많은 부분을 규명하였다. 그렇지만 그간의 연구들이 선승의 입장이나 국왕과의 관계에 대해 서술된 논고가 대부분이었다. 후백제는 그 기록이 적어 국왕이었던 健甌와 선승과의 관계는 논증하기에 더욱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최근의 연구성과들을 통해 健甌이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갖고 선종 산문 그리고 선승과 관계를 맺었는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다수의 산문이 산포해 있던 후백제에서 健甌이 선종 산문에게 취했던 행위들은 아직 베일에 싸여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검토는 후백제 정권의 성격을 밝히는데 중요한 실마리가 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健甌와 선승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健甌의 선승 정책 속에서 그와 관련된 선승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II장에서는 무진주에서 국가 성립단계에서 健甌이

2) 許興植, 1986, 『高麗佛敎史研究』, 一潮閣.

3) 李基白, 1986, 『眞表의 彌勒信仰』, 『新羅思想史研究』; 趙仁成, 1996, 『彌勒信仰과 新羅社會—眞表의 彌勒信仰과 新羅末 農民蜂起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眞檀學報』, 82.

4) 金杜珍, 1988, 『羅末麗初 桐裏山門의 成立과 그 思想—風水地理思想에 대한 再檢討—』, 『東方學志』 57, 36~41쪽; 2007, 『신라시대 선종사상사 연구』, 일조각, 321~324쪽.

5) 金壽泰, 2000, 『甄萱政權과 佛敎』;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후백제와 健甌』, 서경문화사.

6) 曹凡煥, 2001, 『聖住山門 출신의 승려와 高麗 王建』, 『新羅禪宗研究』, 일조각, 170~171쪽.

7) 朴貞柱, 1994, 『新羅末·高麗初 獅子山門과 政治勢力』, 『眞檀學報』 77, 20~22쪽.

8) 申虎澈, 1993, 『甄萱政權의 成立』, 『後百濟 甄萱呈券研究』, 일조각, 53쪽.

9) 裴宰勳, 2009, 『片雲和尚浮圖를 통해 본 實相山門과 甄萱政權』, 『百濟研究』 50, 225~229쪽.

10) 허인욱, 2016a, 『後百濟의 對중국 교류 연구』, 『사학연구』 122, ; 2016b, 『井邑 山內 龍藏寺 관련 기록의 검토—後百濟代 창건을 중심으로—』, 『전북사학』 48.

취한 선승 정책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III장에서는 국가성립 이후 견훤이 추구하였던 선승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그 경과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高麗 성립 이후 후백제 선승 정책에 대해 살피고 그 한계를 알아볼 것이다.

해당 연구를 통해 후백제의 선종 정책이 어떠한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그 한계에 대해 규명하여 견훤정권 불교 정책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2. 무진주 시기 견훤의 선승 포섭과 그 의미

889년 서남해 방수군의 비장이었던 견훤은 신라 중앙 정부에 대한 반란이 본격화되자 재빠르게 세력을 규합하여 자립하기에 이른다. 이처럼 견훤이 단기간에 세력을 결집시킬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서남해 방수군으로 복무하던 때에 확보한 군사적 기반과¹¹⁾ 眞表의 彌勒 신앙을 통한 농민들의 지지가¹²⁾ 크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892년에 武珍州를 점령하고 왕이 되었다. 그렇지만 대외적으로 칭왕을 하지 못하였고 新羅西面都統 都督全武公等州軍事를 대외적으로 표방하였다.¹³⁾

이처럼 견훤은 단기간에 무진주를 포함한 여러 지역을 손에 넣게 되었다. 그런데 견훤이 장악한 무진주를 포함한 서남해 영역은 그 어느 지역보다 선종 산문의 영향력이 컸다. 實相山門(남원 實相寺)·獅子山門(화순 雙峰寺)·동리산문(곡성 泰安寺·광양 玉龍寺)·迦智山門(장흥 寶林寺)과 같이 후백제의 중요한 영역 곳곳에 선종 세력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선종 세력의 협조 없이는 국가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견훤 역시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견훤은 선종산문 포섭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였다.

당시 선종산문 중에는 동리산문과 같이 견훤이 봉기하면서 협력을 했던 산문도 있었으나¹⁴⁾ 실상산문처럼 신라 왕실과의 연결이 깊었던 산문은 후백제 세력에 협조적이지 않았다.¹⁵⁾ 물론 실상산문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계열의 문

11) 申虎澈, 1993, 앞의 책, 25~35쪽.

12) 金壽泰, 2000, 앞의 책, 57~59쪽.

13) 『三國史記』 卷50, 列傳10 甄萱 景福 원년(892).

14) 金杜珍, 2007, 앞의 책, 317쪽.

15) 裴幸勳, 2009, 앞의 논문, 208~215쪽.

도들을 끌어들이는 것처럼 강경책을 구사하기도 하였으나¹⁶⁾ 그들에 대한 회유책도 동시에 병행되었다고 여겨진다. 그렇기에 견훤은 자신의 정권에 비협조적인 산문들을 포섭하기 위하여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 첫 번째는 澄曉大師折中(826~900)과 관계를 맺은 것이다.

A. 이날 大師는 北地를 떠나 점차 南行하다가 公州를 향해 城下를 지나가는데, 長史인 金公休가 郡吏인 宋岳 등과 함께 멀리서 듣고 慈 (결락)에 이르러 郡城으로 영입하고 겸하여 揀其 (결락) 名居. 스님을 그곳에 초빙하여 계시게 하였다. 대사가 장사에게 이르되 “貧道는 늙어 죽음이 임박하였으므로 쌍봉사에 가서 同學들을 만나보고 先師의 탑에 참배하려 하니 만류하지 말아 달라”하시고, 드디어 몇 사람의 대중을 거느리고 떠나 進禮 郡界에 들어서자마자 賊徒들이 길을 차단함을 당하여 대중들이 길을 잃게 되었다. 이때 홀연히 운무가 몰려와 어두워지며 캄캄해지더니 空中에서 兵馬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도적의 우두머리 등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없으며, 뒤로 물러서면서 뿔뿔이 흩어졌고, 대사와 대중은 겁탈의 재앙을 면하였으니, 이는 관세음보살님이 자비로 가호해 주신 덕택이라 하겠다. 한탄스러운 바는 전국 방방곡곡에 草賊이 출몰하여 조용한 곳이 없었다. 이러한 위험한 때에 밤을 새워가며 길을 재촉하여 武府에 도달하였으니, 戎賊들도 공경히 받들었고, 一郡은 조용하며 편안하게 되었다. 대왕께서 대사가 南方으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西境을 보호하였으며 群凶들이 예배하고 大愾가 귀의하였다. 임금은 대사가 길이 국가를 복되게 하며 겸하여 北堂을 위해서 無量寺와 靈神寺인 두 절을 헌납하여 住錫하도록 하였다. 當州의 郡吏 金思尹 등이 찾아와서 禪旨를 듣고 法門에 깊이 감명을 받아 芬嶺에 계시도록 청하고, 郡의 桐林을 禪居에길이 예속시켜 涅槃할 종신처로 삼게 하였다(『寧越興寧寺澄曉大師塔碑』).¹⁷⁾

16) 裴宰勳, 2009. 앞의 논문, 214~215쪽.

17) 此日也, 方離北地, 漸次南行, 路出公州, 經過城下, 長史金公休與群吏宋岳等, 遠聞慈化, 迎入郡城, 兼以揀其名居, 請爲安下. 大師謂長史曰, “貧道, 老之將至, 擬往雙峯, 親尋同學之徒, 面禮先師之塔. 以此南去, 不可踟躕. 遂以使領衆行. 行直入進禮郡界, 被賊徒截道, 禪衆迷途. 忽然, 煙霧沉沉, 須臾斗暗. 賊忽聞, 空裏有若甲馬之聲, 莫不驚

절중은 興寧禪院이 병화를 입자 공주를 거쳐 무진주로 내려오고 이후 分嶺에 자리를 잡게 된다. 선행연구에서 지적하였듯이 절중은 이 시기에 견훤 혹은 후백제와 관련된 호족의 도움을 받았다고 보았다.¹⁸⁾

그렇지만 절중의 후백제 권역 진입은 단순히 선사들의 이동이 아니라 견훤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절중은 이미 憲康王代부터 신라 왕실과 깊은 관계를 유지했던 이름 높은 고승이었다. 이러한 절중을 견훤 정권이 흡수하는 것은 침략자의 성격이 강했던 견훤 정권의 부정적인 면모를 누그러뜨릴 좋은 기회였다. 특히 절중이 무주에 도착하였을 때 孝恭王이 無量寺와 靈神寺에 주석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견훤이 수용함으로써 자신이 단순한 반란세력이 아닌 신라의 지방관임을 자신의 영역 내에서 표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신라에서 이름 높은 고승으로 명망이 높았던 절중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이 신라 왕실을 받들고 있다는 점을 여러 세력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¹⁹⁾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절중이 후백제 권역으로 진입할 때 신라 왕실에서 적극적으로 그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렇지만 절중은 신라 조정이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것을 흥녕선원을 떠나 여러 지역을 전전하면서 직접 확인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지원해줄 새로운 단위로 견훤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만 해도 견훤은 신라와의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면서 대내적인 세력 수합을 도모하고 있던 시기였다. 견훤은 자신에게 비협조적인 지방 세력과 산문들을 포섭하기 위해서라도 절중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런데 절중이 주석하게 된 곳은 위에서 언급했던 사찰들이 아닌 分嶺의 桐林이었다. 분령은 현재의 순천시 낙안읍으로 비정된다.²⁰⁾ 절중을 분령으로 주석시킨 주체는 견훤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절중의 비문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절중의 비문에서는 當州(武州)의 群吏인 金思尹이 그를 주석시켰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절중비에서는 그를 주석시키는 것을 東晉의 安帝와 北齊의 文宣帝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지역의 유력자를 넘어서 국왕급이 되는 주체를 빗대어 말할 때 쓰는 표현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령에 주석처

惶, 逡巡潰散. 大師與衆, 免其劫奪之災. 此則觀音·勢慈擁護之力也. 所恨, 舉邦草寇無處不之. 此際, 星夜倍程, 達于武府. 於是, 元戎敬仰, 一郡回蘇. 大王聞, 大師遊歷南方, 護持四境, 群兇稽手, 大慙歸心, 則知大師永福國家, 兼爲牆塹, 特寄無量·靈神二寺, 請以住之. 當州群吏金思尹等, 欽聞禪旨, 深沐法恩, 請住芬嶺郡之桐林, 永屬禪居, 以爲終焉之所(崔仁澆 撰, 『寧越 興寧寺 澄曉大師塔碑』, 李智冠, 1994,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高麗篇1, 伽山文庫, 279~296쪽).

18) 朴貞柱, 1994, 앞의 논문, 20~22쪽.

19) 申虎澈, 1993, 앞의 책, 106~107쪽.

20) 李智冠, 1994, 앞의 책, 296쪽.

를 마련한 것은 건甁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절중은 비문에서 밝혔듯이 자신의 스승인 澈鑿禪師 道允(798~868)의 탑이 있던 雙峰寺가 최종 목적지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건甁은 절중을 분령으로 보냈을지 궁금해진다. 이곳은 지리적으로 昇平에 맞닿아 있었으며 그곳은 건甁의 사위였던 朴英規나 金攄의 세력권이었다. 건甁은 절중을 받아들였으나 그는 신라 왕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던 선승이었다. 대외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절중이 적합하였으나 신라로의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에 그의 세력을 적당히 이용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그렇기에 자신이 신뢰하는 승평 지역으로 절중을 주석시켜 그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겼을 것으로 볼 수 있다.²¹⁾

이는 후에 절중의 행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그는 이곳에서 주석하다가 재난이 일어날 것이라 하면서 중국으로 유학을 가고자 하였다. 이 시기는 비문의 내용을 보아 절중이 입적하기 전으로 생각되는데 900년을 전후로 후백제는 공식적으로 국가를 선포하고 신라와의 대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건甁이 신라의 지방관을 자처하면서 여러 세력을 아우르고 있었기 때문에 절중은 그에게 귀의하였던 것이지만 후백제가 신라와의 대결을 앞둔 상황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후백제를 떠난 것으로 생각된다.²²⁾

건甁에게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절중이 입적할 시기 정도가 되면 건甁은 국가 선포를 공표할 만큼 대·내외적으로 큰 세력으로 성장한 상황이었다. 또한 절중의 문도들은 절중이 입적한 뒤에 다시 분령으로 돌아온 것이 확인되는데 이는 절중의 문도들을 건甁이 흡수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이들은 사자산문의 범맥을 잇고 있었기 때문에 건甁은 이들 중 자신에게 협조적인 선승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고 판단된다. 당시 쌍봉사를 이끌고 있던 이는 法鏡大師 慶猷(871~921)의 스승인 訓宗長老였는데 그는 도운이 입적한 뒤에 사자산문을 이끌어 나가고 있었다.²³⁾

훈종장로는 기존에 지적되었듯이 건甁과 관계를 맺고 산문의 영향력을 확대

21) 이는 절중비문의 陰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절중비의 음기는 고려 왕실과 개국공신 뿐만 아니라 절중이 잠시 거쳐했던 공주·제천 등의 세력들도 확인해볼 수 있다. 그렇지만 승평과 관련된 박영규와 같은 인물들은 음기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절중이 분령에 주석했음에도 해당 지역의 호족들과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22) 절중은 헌강왕·정강왕에 이어 眞聖王과 효공왕에 이르도록 누대에 걸쳐 신라 왕실의 지원과 관심을 받았던 선승이었다. 그가 비록 흥녕선원이 소실되어 후백제 권역으로 이동하여 건甁의 지원을 받았으나 신라 왕실을 부정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23) 曹凡煥, 2008, 『新羅 下代 道允禪師와 獅子山門의 개창』, 『羅末麗初 禪宗山門 開倉研究』, 京仁文化社, 172~173쪽.

해나가고 있었다.²⁴⁾ 그가 견훤과 언제 관계를 맺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아마 쌍봉사가 견훤이 거병하여 이곳이 그의 영향력 아래 들어왔을 때 부터라고 볼 수 있다.²⁵⁾ 그리고 절충이 입적한 뒤에는 그의 문도들을 쌍봉사 영향력 아래 둬으로써 이들을 흡수하고자 하였을 것이다.²⁶⁾ 결국 견훤은 절충을 통해 사자산문이 협조하게 되었으며 이는 다른 산문과의 관계를 맺는데 일정하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절충과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견훤과 관계를 맺었던 선승으로는 眞境大師 審希(855~923)를 들 수 있다. 심희는 園監禪師 玄昱(788~869)의 제자로 여주의 惠目山에 주석하다가 文德(888)에 무주의 松溪禪院으로 이동하였다. 심희의 스승인 현욱은 신라 왕실과 밀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888년 무렵에 梁吉의 세력이 커지게 되면서 단월을 찾아 남하한 것으로 알 수 있다.²⁷⁾ 심희도 절충과 마찬가지로 견훤 세력에 의해 포섭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또한 신라 왕실과 교분이 깊었던 현욱의 제자였으며 여주 일대에서 이미 이름을 떨치고 있던 선승이었기 때문이다.²⁸⁾

심희가 머무르던 송계선원은 현재 전남 강진군에 해당하는데²⁹⁾ 해당 사찰은 월출산에 위치한 월남사에서 ‘松溪寺’銘 기와가 출토되어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³⁰⁾ 견훤은 자신이 자립하는데 큰 기반이 된 서남해 일대의 민심을 다잡기 위해 심희를 강진 지역에 주석시킨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심희도 마찬가지로 乾寧(894~897) 말년에 송계선원 떠나 溟州로 이동하였다. 그도 절충과 마찬가지로 견훤이 국가를 선포하고 신라와의 대결이 이루어지는 것에 반대하여 떠났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견훤은 자신이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승들을

24) 曹凡煥, 2008, 위의 책, 175쪽.

25) 조범환은 승주지역의 호족과 장보고가 쌍봉사의 단월 세력이었다고 보았으며 장보고 사후에 이들은 반신라적 성향을 보였을 것으로 보았다(조범환, 2013, 『무진주 지역 불교계의 동향과 쌍봉사』, 『羅木麗初 南宗禪 研究』, 일조각, 78~89쪽).

26) 절충이 입적한 뒤에 그의 문도들이 신라 孝恭王에게 시호와 답비를 하사할 것을 주청하여 신라 조정이 이를 받아들였다. 조범환은 이러한 점을 들어 절충의 문도들이 친신라적 성향을 보였다고 보았다(曹凡煥, 2008, 위의 책, 175쪽). 그렇지만 절충이 입적할 당시 그의 문도가 천여 명이 넘었으며 그가 입적한 뒤에는 대부분의 세력이 견훤에게 귀의했을 것이다. 아마 절충의 문도들은 신라 왕실의 힘을 빌어 자신의 세력이 견훤에게 흡수당하는 것을 막고자 했다고 여겨진다.

27) 김혜완, 2002, 『고달사의 불교사적 고찰』, 『고달사지 I』, 154쪽.

28) 김용선, 2006, 『玄昱·審希·璨幽와 여주 고달사』, 『한국중세사연구』 21, 122~123쪽.

29) 김용선, 2006, 위의 논문, 123쪽 각주 20.

30) 이영문·조근우, 1995, 『월남사지 유적·유물』, 『月南寺址』, 木浦大學校博物館·康津郡, 69쪽.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토착세력이 아닌 외부의 세력이었던 견훤에게 가장 시급했던 일 중 하나는 자신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세력이었다. 견훤의 고향인 加恩縣은 鳳巖寺의 智證大師 道憲(824~882)의 문도들이 이끌어가고 있었다.³¹⁾ 그렇기에 견훤은 자신의 본향인 봉암사의 선사들을 적극적으로 포섭하고자 하였을 것이다.³²⁾

이렇게 봉암사에서 견훤에게 호응한 인물로는 陽孚(?~917)를 들 수 있다.³³⁾ 도헌의 비문은 그가 입적할 당시에 찬술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양부는 한 동안 봉암사에 거처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 양부의 행적은 그의 제자였던 靜眞大師 兢讓(878~956)의 비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³⁴⁾

B. 드디어 乾寧 4년(897) 鷄龍山 보원정사에서 持犯, 비구계를 받았다. (...중략) 드디어 西穴院 楊孚禪師를 친견하였다(『閩慶鳳巖寺智證大師塔碑』).³⁵⁾

양부는 897년 이후 서혈원에 주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서혈원은 공주에 위치하고 있던 사찰이었다.³⁶⁾ 양부가 언제 공주로 이동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견훤이 都督全武公等州軍事를 칭하는 892년 이후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봉암사의 승려였던 양부가 서혈원에 주석하게 된 것은 견훤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당시 공주를 경계로 여러 세력이 난립하고 있던 상황에서

31) 가은현에 소재하고 있는 봉암사는 현재 행정구역 상으로는 문경에 속하고 있으나 문경은 고려 恭讓王 2년(1390)에 郡으로 승격되었다. 그 이전에 가은현은 상주에 속하거나(『三國史記』 卷50, 列傳50 甄萱) 古寧郡에 속하였으나(『三國史記』 卷34, 雜志3 新羅 古寧郡) 『三國史記』 견훤전의 내용을 따라 서술하도록 하겠다.

32) 상주 일대는 진성왕 3년(889)에 일어난 元宗과 哀奴의 난으로 신라 조정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견훤의 부친인 阿慈介는 장군으로 독립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를 통해 상주는 중앙 세력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던 지역이었으며 견훤은 자신의 본향이었던 상주 출신의 선승인 양부와 그의 문도들을 후백제 정권에 참여시켰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상주는 904년 궁예가 점령하며 경북 일대로의 진출을 모색하였으나 907년 견훤이 善郡을 공략하여 이를 저지시키게 되었다(『三國史記』 卷12, 新羅本紀12 孝恭王 11년).

33) 양부는 『閩慶鳳巖寺智證大師塔碑』에서 지증대사 도헌의 제자로 등장하는 인물이다.

34) 궁양 또한 후백제와 관련이 있음이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다(金壽泰, 2000, 앞의 책, 68쪽).

35) 乾寧四載, 於雞龍山普願精舍, 稟持犯. (...중략) 遂謁西穴院揚孚禪師(李夢遊 撰, 『閩慶鳳巖寺 智證大師塔碑』, 李智冠, 1994, 앞의 책, 470~471쪽).

36) 서혈원은 조선 시대에는 西穴寺로 불리던 사찰임을 알 수 있다(『新增東國輿地勝覽』 卷17, 忠淸道 公州牧 佛宇). 이는 이인재의 논고에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李仁在, 2005, 『선사(禪師) 궁양(兢讓; 878~956)의 생애와 대장경(大藏經)』, 『韓國史研究』 131, 168쪽).

견훤은 해당 지역의 이탈을 막기 위해 양부를 보내어 공주 지역의 민심을 확보하고자 양부를 보냈다고 여겨진다.

특히 양부의 문하승으로 궁양이 들어온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견훤이 정책적으로 도움을 준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기존에도 지적되었듯이 견훤이 남중국 吳越과의 외교활동을 하였으며 이러한 교류 속에서 선승들은 중국으로 유학을 떠났다.³⁷⁾ 견훤이 후백제를 대외적으로 선포한 900년 이전에 그의 영역에서 유학을 떠난 선승으로는 眞澈大師 利嚴(870~936)·先覺大師 迴微(864~917)·法鏡大師 玄暉(879~941) 등이 있다. 이들은 후백제와 오월과의 교류 과정에서 유학을 떠났는데 이는 견훤이 의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견훤은 자신을 지지해줄 세력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지지기반을 확보해줄 수 있는 대상으로 선종 세력을 주목하였다. 그렇지만 양부와 같이 자신의 동향 출신으로 신뢰할 만한 선승들은 극히 적었을 것이다. 결국 견훤은 자신이 신뢰하는 선승인 양부를 지원함으로써 그와 그의 문도들이 자신의 확실한 지지세력이 되어주리라고 보았다. 그리고 궁양과 같은 그의 제자들을 중국에 유학을 보내어 인적자원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다른 선종 세력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이들도 마찬가지로 젊은 선사들의 유학을 지원해주었다. 견훤은 여러 선종 세력들의 유학을 장려하면서 산문들의 지지를 얻고자 하였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유학을 떠났던 선사들이 귀국한다면 이들을 이용하여 종교계의 세력들을 포섭하는데 더욱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궁양도 이러한 환경 속에서 900년에 중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이처럼 견훤의 초기 선종 정책은 자신의 세력 기반을 다지기 위한 목적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견훤은 신라의 지방관임을 자처하면서 그에게 선종 세력들을 회유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구사하였다. 신라 왕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던 절충을 포섭하여 자신이 신라 왕실과 적대적이지 않음을 여러 세력에게 공표하였다. 그리고 동향 출신이었던 양부를 통해 자신을 지지하는 선승 세력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여러 산문의 젊은 선승들에게 중국 유학의 기회를 줌으로써 이들을 빠르게 포섭했다.

이러한 포섭책을 통해 견훤은 선종 산문 대부분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들과 제휴하고 있던 지방 세력들 또한 후백제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갔을 것이다. 이는 후백제가 빠르게 국가의 형태를 갖추고 대외적으로 국가를

37) 허인욱, 2016a, 앞의 논문, 45~48쪽.

표방할 수 있는 단계까지 들어가게 되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900년에 후백제가 전주로 수도를 옮기고 외부로의 세력확대를 도모하게 되면서 후백제의 선승 정책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는 장절을 달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서남해 선승 주석 의도와 그 영향

후백제는 10여 년간의 국가 정립기를 거쳐 900년에 이르러 견훤이 대외적으로 칭왕을 하고 관부를 설치하는 등 국가를 정식으로 성립하기에 이른다. 이 시기에 이르면 견훤은 신라 왕실과 관련되어 있는 선종 산문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선승들을 주석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국가 성립 이후에 신라로의 진출과 관련이 깊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견훤의 선승 정책 또한 변화를 맞게 된다.

901년에 후백제는 신라의 大耶城을 공격하게 되면서 신라로의 진출을 도모하게 된다. 그런데 대야성 침공이 실패하게 되자 견훤은 회군하는 길에 錦城을 약탈하고 돌아갔다.³⁸⁾ 견훤이 약탈한 금성 일대는 그가 처음 거병한 곳이기도 했다.³⁹⁾ 그렇지만 후백제가 성립된 뒤에 지배력이 강화되자 해당 지역의 토착 세력들이 불만을 가져 견훤에게 등을 돌리게 되었다.⁴⁰⁾ 결국 견훤은 이들에 대한 공략을 하게 되었으며 이는 903년에 금성이 왕건에게 투항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나주로 개칭된 금성은 泰封의 서남해 거점지역으로 부상하게 되었으며 후백제는 후방에 적을 두게 된 셈이었다. 또한 이듬해인 904년에는 공주의 장군 弘奇가 궁예에게 투항하게 되었다.⁴¹⁾ 이렇게 되자 후백제는 서남해의 세력을 무력적인 방법만으로는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그들을 회유하여 더 이상의 세력 이탈을 막고자 하였을 것이다. 이 시기와 맞물려 견훤의 선승 정책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여겨진다. 견훤은 해당 지역에 선승을 파견하여 민심을 회유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다음은

38) 『三國史記』 卷12, 新羅本紀12 孝恭王 5년(901) 8월.

39) 신호철, 2016, 『高麗 건국기 西南海 지방세력의 동향—羅州 호족의 활동을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 58, 4~5쪽.

40) 신호철, 2016, 위의 논문, 5쪽.

41) 『三國史記』 卷50, 列傳10 弓裔 天祐 원년(904).

후백제와 연결되었다고 여겨지는 선승들에 대한 기록이다.

C-1. 天祐 2년(905) 6월 (결락) 武州의 회진으로 돌아와 주석하였다. 이때 知州蘇判 王公인 池本이 대사를 친견할 생각이 간절하여 배를 타고 平津에 이르자마자, (결락) 地 (결락) 慈 (결락) 항상 世間으로 나아가 부처님의 慧日을 비추어 주었다. 그리고 四事共養을 계속 궁중에서 보내왔으니 실로 展 (결락) 仍 (결락) 山 無爲岬寺에 住持하도록 간청하므로 대사는 그 命을 받아 靈境에 옮겨 가서 주석하였다. 이 절은 林泉 (결락) 意淑 (결락) 地. 그러므로 그 基址를 중수하고 8년 동안 주석하였다. 찾아오는 사람이 구름 같았고, 모인 대중은 바다와 같았다. (天祐) 9년(912, 태봉 건국 2년) 8월에 이르러 前主가 북쪽 지역을 완전히 평정하였다. (결락) 선단을 일으켜 친히 수레를 몰고 오셨다. 이때 나누는 항복하였으므로 강가의 섬 [浦嶼] 에 군대를 멈추었지만, 무부는 저항하였으므로 수도 근방에서 무리를 크게 일으키셨다. 때에 大王께서는 일찍이 대사가 근래에 오월에서 진한의 땅에 다시 들어오셔서 마니보주를 바닷가에 감추고, 미옥을 하늘 바깥에 감추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먼저 글 [丹詔] 을 보내어 스님의 도간에 공경을 표시하니, 대사는 왕명을 받들어 험한 파도를 무릅쓰고 거친 파도를 헤치고 달려 왔다. 직접 (대왕의) 호랑이와 같은 기세를 살펴보고 가만히 (대사의) 용과 같은 지혜를 가만히 숙이셨다. 강승회가 오왕을 더욱 밝게 한 것에 더할 것이 없었다. 그 후 군대를 돌이킬 때에 특별히 (스님에게) 함께 돌아갈 것을 청하였고, 2~3일 사이에 북쪽 해안에 이르렀다. 마침내 ... (스님이) 사용하는 비용은 모두 內庫에서 지출되었다(『康津 無爲寺 先覺大師 遍光靈塔碑』).⁴²⁾

42) 迺於天祐二年六月返于武州之會津此時知州蘇判王公池本竊承 大師纔諧捨筏已抵平津地之攀慈, 每以趨塵如窺慧日常於四事遠假天廚實展仍以那山無爲岬寺請以住持 大師唯命是聽徙居靈境此寺也林泉意寂之, 地然則重修基址八換星霜來者如雲納之似海時 至九年八月中 前主永平北須所以發舳舻 親駟車駕 此時羅州歸命 屯軍於浦嶼之傍 武府逆鱗 動衆於郊畿之場 此時, 大王聞大師近從吳

C-2. 天祐 5년(908) 7월 武州의 會津으로 돌아왔다. 이때 군대는 땅에 가득하고 도적은 곳곳에 횡행하였다. ... 대사는 岩穴에 깊이 숨어 세상의 혼란함을 피하였다. ... 先王이 곧바로 북쪽에서 길을 떠나 남쪽의 정벌에 나섰다. 길을 따라 오시니 하늘(=왕)을 벗어날 사람이 없었다. 특별히 사신을 보내 먼저 스님의 선실에 이르러 군영으로 오라는 조서를 전하였다. 대사는 임금님의 명령을 받들자 임금님의 행차를 지체시킬 수 없어 (곧바로 나아갔다.) 군영에 당도하자 곧바로 임금님의 처소로 맞이하였다. 며칠을 계속 이곳에 머무르며 가르침을 거듭 전하였다. (임금께서) “과인이 급히 군대를 돌이켜야 하니 스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자 대사는 임금의 수레에 타는 것을 꺼려하였지만 곧이어 ... 그것을 일찍이 대장경을 열람하다가 승려들의 전기를 읽으니 송나라 무제가 적을 평정하였을 때 각현이 (무제의) 자신을 모시려는 정성을 받아들인 일과 수나라 무제가 나라를 살피고 돌아다닐 때 법찬이 (문제의) 자신을 모시려는 바람에 응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모두 같은 마음으로 불법을 소중히 한 것이니 천년 이전과 이후가 한결같았다(『長湍 五龍寺 法鏡大師 普照慧光塔碑』.⁴³⁾

선각대사 형미는 가지산문 출신으로 891년에 입당하여 905년에 귀국하였다. 그는 귀국 후에 C-1에 등장하는 武州 蘇判인 王池本에 의해 無爲寺에 주석하게 된다. 기존에 지적되었듯이 형미는 후백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왕지본에

越 新到秦韓, 匿摩尼於海隅 藏美玉於天表 所以先飛 丹詔 遽屈道竿 大師捧制奔波 趁風猛浪 親窺虎翼 暗縮龍頭 僧□□壽吳王轉明之于□□ 無以加也 其後班師之際 特請同歸 信宿之間 臻于北岸 遂於□那□□詣 拂□□供給之資 出於內庫(崔彥撫 撰, 『康津 無爲寺 先覺大師塔碑』, 李智冠, 1994, 앞의 책, 276쪽).

43) 灑於天祐五年七月 達于武州之會津 此時兵戎滿地 賊寇滔天 三鐘所居四郊多壘 大師深藏巖穴遠避烟塵與麋鹿同 逢 珠 啣水媚當大溟映月之時 玉透山輝是深洞聞風之處 先王直從北發 專事南征 徇地之行 逃天者少 特差華介 先詣禪扃 奉傳詔書 赴軍壁也令 大師歛聆 帝命 寧滯王程 及其方到柳營 便邀蘭殿 留連再三 付囑重疊 寡人遽迴龍旆 祇俯鳳儀 大師難趁乘輿 續起 則曾觀藏經 仍窺僧史 宋武平敵 覺賢遂附鳳之誠 隋文省方法瓊膺從龍之愿 一心重法 千載同符 豈期神器將傾(崔彥撫 撰, 『長湍 五龍寺 法鏡大師 普照慧光塔碑』, 李智冠, 1994, 앞의 책, 210~214쪽 ; 최연식, 2011, 『康津 無爲寺康津 無爲寺 先覺大師碑를 통해 본 弓裔 행적의 재검토』, 『목간과 문자』 7, 214쪽 참조).

의해 초빙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⁴⁴⁾ 그리고 형미를 초빙한 주체는 견훤이었다고 생각된다. 당시 후백제는 나주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이를 타개하고 서남해 일대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형미를 포섭했을 것이다. 특히 형미가 머물렀던 무위사는 심희가 머물렀던 송계선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⁴⁵⁾ 이는 견훤이 심희가 맡았던 서남해 세력에 대한 민심 위무를 형미에게 대신 맡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견훤은 법경대사 경유를 포섭했다고 여겨진다. 경유는 908년에 귀국하였는데 그 또한 형미와 마찬가지로 서남해 일대에 주석하면서 지역에 대한 민심을 위무하는 역할을 맡겼을 것이다.⁴⁶⁾ 경유는 사자산문 훈종장로의 제자였기 때문에 후백제에서 그를 본사인 쌍봉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남해에 머무르도록 했다고 볼 수 있다. C-2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귀국했던 회진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는 기록이 없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견훤은 이들로 하여금 서남해 일대의 민심을 안정화하고자 했을 것이다.

또한 최근에 연구를 통해 밝혀진 井畵의 龍藏寺址에 주석했다고 하는 照通和尚을 통해서 견훤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⁴⁷⁾ 조통화상이 용장사를 창건한 시기는 ‘新羅朴氏代’라고 전해지는데⁴⁸⁾ ‘박씨왕’은 후삼국 시기의 박씨왕을 지칭함을 알 수 있다.⁴⁹⁾ 특히 조통화상은 曹洞宗 계열의 雲居 道膺(?~902)의 제자였는데⁵⁰⁾ 앞서 언급했던 형미·경유와 동문인 셈이다.⁵¹⁾ 그리고 또 다른 운거도응의 제자였던 大鏡大師 麗嚴(862~930)과 이엄 또한 서남해의 후백제 지역으로 귀국하는 것으로 보아 견훤이 이들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다.

형미(가지산문)·경유(사자산문)·여엄(성주산문)과 서산 지역의 유력한 사찰

44) 허인욱, 2011, 앞의 논문, 51쪽.

45) 무위사와 월남사지의 거리는 3km 내외이다.

46) C-2에서 볼 수 있듯이 그가 귀국한 뒤에 巖穴에 머물러 있다가 왕건과 결연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무위사에 머물렀던 형미의 활동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반면 경유의 행적은 모호한 편이다. 이는 형미와 달리 경유가 고려 왕조의 첫 王師였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컸기 때문에 그가 적국이었던 후백제와 관련이 있었다는 점을 애매하게 서술한 것으로 판단된다.

47) 이에 대한 논고로는 허인욱, 2016a, 앞의 논문 참조.

48) 一日有主寺僧翠玉其名者 踵門而諗懇曰：之寺之草創 昉於新羅朴氏朝代也(『無竟集』 卷2, 『雲住山龍藏寺事蹟記』).

49) 허인욱, 2016b, 앞의 논문, 40쪽.

50) 허인욱, 2016b, 앞의 논문, 37쪽.

51) 조통화상이 어느 산문에 소속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후백제 권역 내에 속했던 산문 중 하나였을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이었던 가야갑사의 이엄 그리고 출신이 불분명한 조통화상까지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운거도응의 제자라는 점이다. 건甁은 여러 산문 출신인 이들이 운거도응의 제자라는 점을 주목하여 그들을 구심으로 삼아 선종 산문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나아가 지방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이는 형미가 주석했던 무위사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서남해에서 중요한 거점에 이들을 주석시키는 것에서 그 의도를 확인해볼 수 있다.

또한 국가를 수립한 건甁의 다음 과제는 여전히 신라 왕실과 밀접한 연관이 있던 대부분의 선종 산문들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묶어두는 일이었다. 건甁이 후백제를 수립하고 서남해의 여러 세력을 손에 넣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선종 세력들은 신라 왕실과의 관계를 지속하였다. 이는 실상사의 수철화상비를 통해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 수철화상비는 905년에 건립되었는데 이는 이미 남원 지역이 후백제의 권역이 된 이후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비문의 내용은 건甁이나 후백제 정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신라 왕실과 수철화상의 관계에 대해서만 기술되어 있다. 이는 후백제가 이미 점유하고 있는 지역도 여전히 신라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미치고 있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甁은 선종 산문이 신라의 영향력을 받는 것을 차단하고 독립적인 선종 세력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을 것이다. 그가 유학승들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은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겨진다. 자신의 권역 내에 있던 선종 산문에 유학승을 적극적으로 주석시켜 신라 왕실과의 관계를 차단하고 이들을 통해 산문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새롭게 국가를 수립한 건甁의 입장에서는 신라는 극복해야 할 대상이었으며 별개의 독립 세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상계의 협조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했다.

이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유학승에 대한 포섭과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건甁에게 중요한 정책적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즉 형미와 경유는 서남해에 주석하면서 건甁의 지원을 받아 이 일대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이다. 이는 나주라는 거점을 확보하고 있던 태봉에게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후백제가 서남해 세력을 회유하게 된다면 그나마 확보하고 있던 나주 지역도 건甁의 수중에 다시 들어갈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907년에 건甁이 一善郡 일대를 확보하게 되었는데⁵²⁾ 후백제와의 영역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태봉은 그 배후 거점인 서남해 일대를 전면적으로 공략하고자 했다고 여겨진다. 이는 909년부터 시작된 서남해 일대에서의 태봉

52) 『三國史記』 卷12, 新羅本紀12 孝恭王 12년(907).

과 후백제의 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서남해 일대는 909년부터 912년까지 약 3년간 이어지는데 왕건의 활약으로 이 일대는 신속하게 점령되었다. 왕건이 이처럼 서남해 일대를 빠르게 석권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견훤이 지원하고 있던 형미와 경유를 포섭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여겨진다.⁵³⁾ 형미와 경유는 서남해 세력들의 민심을 아우르는 선승들이었으며 왕건은 이들을 통해 빠르게 점령 지역을 안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견훤에게는 이들과 이탈하게 되자 무주 지역을 제외한 서남해 지역 대부분을 태봉에게 상실하게 되었다.⁵⁴⁾

그리고 이 시기부터 견훤의 선승 정책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견훤은 앞서 언급했듯이 유학에서 돌아온 선승들을 주요한 거점에 주석시켜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형미와 경유와 같이 자신이 지원했던 선종 세력이 왕건과 결연하게 됨으로써 도리어 후백제 정권에 큰 타격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로 인해 후백제의 선승 후원이 이 시기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서남해에서 태봉과 후백제의 패권 다툼이 치열하던 909년에는 여엄이 그리고 911년에는 이엄이 각각 귀국하게 된다. 여엄같은 경우에는 무주의 昇平으로 귀국하게 되는데 해당 지역은 당시 후백제의 주요한 세력권이었다. 그럼에도 여엄은 후백제와 연결되지 않고 忠州 지역으로 북상하게 된다. 이엄 또한 911년 나주의 會津으로 귀국하였으나 후백제가 아닌 金海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물론 전쟁의 여파로 해당 지역에 머무르기에는 위험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피해서 이동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두 선승이 유학을 떠났을 당시 그들이 소속되어 있던 산문이 후백제의 영역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후백제 측에서 이들에 대한 포섭에 적극적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⁵⁵⁾

53) 배재훈은 형미를 철원으로 데려간 것이 궁예정권의 강제력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배재훈, 2011, 『견훤의 군사적 기반』, 『新羅文化』 36, 36쪽). 그렇지만 형미는 909년에 이미 왕건에게 포섭된 이후로 그가 철원으로 돌아가는 913년까지 4년간 무위사에 주석하면서 그의 세력에 동조하였다고 생각된다. 왕건에게는 서남해 지역에서 자신을 옹호해주는 형미와 경유의 산문 세력이 필요했을 것이며 이러한 목적으로 형미와 경유를 적극적으로 포섭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54) 형미가 주석하였던 무위사는 월출산을 비롯하여 강진과 영암 일대에서 큰 위세를 떨치던 세력이었다. 특히 무위사가 있는 월출산 일대는 송계선원(월남사)을 비롯한 여러 사찰이 소재하고 있었던 곳이며 강진 또한 서남해의 수로 교통의 중심에 있던 거점이었다. 서남해를 확보하고자 하던 태봉과 후백제는 강진 일대의 확보가 해당 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확보라는 측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였을 것이다.

55) 이엄은 富城(서산) 출신이었으며 그의 조상은 熊川(공주)에 기거하였다. 迦耶岬寺에서 출가하였는데, 그가 유학 전에 활동했던 곳은 聖住山門의 영향력이 강한 곳이었다(曹

이러한 내막에는 904년에 공주 지역이 태봉에게 내항한 것과 서남해 공방전 과정에서 형미와 경유가 왕건에게 포섭된 것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공주 지역이 태봉에 내속되자 성주산문도 그 영향력 아래에 들어간 것으로 여겨진다.⁵⁶⁾ 그리고 형미와 경유까지 후백제에서 이탈하게 되자 태봉과 관련이 있는 선승들에 대한 포섭에 소극적인 입장이 된 것 같다. 이는 후백제가 성립했을 시기의 영역에서 한동안 정체되어 있던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서남해 전역이 종료되는 시점에 귀국한 것으로 여겨지는 조통화상이 주석한 용장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조통화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박씨왕 시기에 용장사를 창건하였다. 후삼국시기 박씨왕이 즉위한 것은 신덕왕으로 912년의 일이었다. 다른 운거도응의 제자들이 905~911년 사이에 귀국했고 서남해에서의 전투들이 912년 이후 마무리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조통화상이 귀국한 시점은 912년에 가까운 시기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 해는 서남해에서의 전쟁이 마무리되고 후백제와 태봉 간의 긴장 관계가 지속되던 시기이다.⁵⁷⁾ 태봉은 왕건을 파견하여 수군력을 증강했기 때문에 후백제가 서남해로의 재진출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훤은 조통화상을 외지로 보내어 다른 세력을 포용하는 것보다 수도인 전주 근방에 그를 주석시켜 자신의 통제력이 직접 미치는 곳에 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는 후백제가 916년의 대야성 공략에 차차 실패하는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서남해 지역을 상실한 후백제가 돌파구로서 신라 방면으로의 진출을 모색했으나 그마저 좌절된 것이다. 이 시기 이후 건훤은 내부의 세력을 추스르고 불교계 세력을 아우르기 위해 노력하는데⁵⁸⁾ 조통화상의 용장사 주석도 이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凡煥, 2001, 앞의 책, 147~151쪽). 그리고 여엄은 성주산문 朗慧 無染의 제자였다.
 56) 조범환은 900년에 왕건이 광주, 충주, 당성 괴양 등을 평정했다는 기사를 들어 당성을 점령한 궁예정권이 성주산문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曹凡煥, 2001, 앞의 책, 170쪽), 당성은 성주사가 위치한 보령 지역과 분명히 거리상 다소 거리에 자리 잡고 있다. 그렇기에 성주산문이 궁예의 영향권에 들어간 시기는 904년에 공주 지역이 궁예에게 내항한 시점이 후백제에서 이탈된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57) 913년에 승전한 왕건이 侍中으로 내직에 기용되지만 1년 뒤인 914년에 시중에서 해임되고 다시 서남해로 파견되게 된다(『高麗史』 卷1, 世家1 太祖總序 乾化 4년(914)).
 58) 김수태는 금산사의 미륵신앙과 미륵사의 개탑식을 통해 건훤이 전제 군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했다고 보았다(金壽泰, 2000, 앞의 책, 63~65쪽). 그렇지만 후삼국 시대의 군주였던 궁예나 왕건, 그리고 신라의 왕들도 지방 세력과의 관계에 대해 골몰하던 시점이었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건훤의 행보는 전제 군주를 추구하였다기보다는 세력 간의 우의와 결속을 다지는 성격이 더 강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이처럼 후백제가 국가를 수립한 뒤에 견훤은 다양한 산문 계열의 선승들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어 사상계를 통할하여 국가체제를 견고히 하여 자신의 영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고자 하였다. 특히 선종 산문과 신라 왕실과의 관계를 끊어내어 사상계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자 했다. 그렇지만 태봉과 같은 외부 세력의 도전으로 위기를 맞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견훤이 애초에 이루고자 했던 바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견훤은 종교계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으나 그의 선승 정책은 국가성립 이전 단계에서 크게 진보하지 못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918년 고려가 건국되면서 후삼국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는데 이 시기에 후백제는 선종계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했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고 하겠다.

4. 신라로의 진출 모색과 후백제 선승 정책의 한계

918년에 왕건의 정변으로 궁예가 폐위되고 고려가 성립되면서 후삼국의 정세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특히 고려는 왕건의 즉위 초반에 여러 반란세력으로부터 크게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는 왕건의 즉위 직후 일어난 熊州의 이탈로 이어지게 되는데⁵⁹⁾ 후백제는 응주를 비롯한 충청도 일대를 회복하게 된다. 그렇지만 고려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이듬해인 919년에는 開京으로 천도하였으며, 920년 정월에는 신라와 교빙하여 우호 관계를 다지게 되었다.⁶⁰⁾

신라가 고려에게 기울게 되자 후백제는 고립을 탈피하고 신라로의 대대적인 진출을 위해 같은 해 10월에 전격적으로 대야성을 침공하여 함락하였다.⁶¹⁾ 대야성을 함락시킨 뒤에 견훤은 進禮까지 진출하여 신라의 배후를 위협하였으나 고려의 구원으로 회군하게 되었다. 이 시기 진례에는 進禮城諸軍事 金律熙(蘇律熙)가 이 지역의 지배 세력으로 군림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곳은 이엄·심희·朗空大師 行寂(832~916)과 같은 선승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⁶²⁾ 김윤희는 이곳을 영유하면서 신라 조정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⁶³⁾ 이로 인해

59) 『高麗史』 卷1, 世家1 太祖 원년(918) 8월 23일 계해.

60) 『高麗史』 卷1, 世家1 太祖 3년(920) 1월.

61) 『高麗史』 卷1, 世家1 太祖 3년(920) 10월.

62) 김해지역의 선종 세력에 대한 연구는 崔炳憲, 1978, 『羅末麗初 金海地方의 豪族勢力과 禪宗』, 『韓國史論』 4 참조.

63) 崔炳憲, 1978, 위의 논문, 426~428쪽.

후백제의 다음 표적이 되었을 것이다.

후백제의 진례 진출로 인해 해당 지역은 타격을 입게 되었으며 이는 심희의 제자인 眞空大師 忠湛(869~940)과 元宗大師 璨幽(869~958) 그리고 이엄이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봉림산문 소속이었던 충담과 찬유 그리고 이엄은 이후 고려에 포섭되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후백제의 선승 정책의 한계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진례로 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선승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철수했다는 것은 후백제가 이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심희 같은 경우에는 견훤이 정권을 수립하기 직전에 떠났으며 이엄 또한 후백제가 그와 관계를 맺는 것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정권에 참여하지 않았다.

물론 고려의 적극적인 군사 행동으로 인해 철군을 서둘렀다고 볼 수 있지만 이들과의 관계 성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후백제는 경남 지역으로의 진출이 더더욱 되었다. 또한 봉림산문을 포함한 김해지역의 선승 세력이 고려에 흡수된 것도 큰 타격이었다. 봉림산문 문도들의 고려 유입으로 인해 후백제는 불교계에서 침략자의 이미지가 크게 부각 되었을 것이다. 이는 924년에 귀국하는 현휘가 자신이 속했던 성주산문의 권역이었던 후백제가 아닌 고려를 택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고려 입장에서는 후백제에 속해있던 선종 승려들이나 봉림산문과 같이 그들에게 피해를 입은 산문들의 선승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함으로써 자신들이 선종 세력의 보호자임을 표방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당시 원신라 지역이었던 경상도 일대의 지방 세력들이 후백제에 동조하는 것을 꺼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여겨진다. 견훤의 대야성 함락 이후 경북 지역의 여러 성이 고려에게 귀부하는 것을 통해 이를 짐작해볼 수 있다. 후백제는 고려와 신라 사이에서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려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또한 신라와의 관계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다음 기록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D-1. 乾化 甲戌年(914) 봄에 牛頭山 開禪寺에 가서 悟心長老를 예방하고 불법에 귀의할 것을 청하여, 장로가 가상히 여기고 사랑하여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게 하니 이때 나이가 16세였다. 3년이 지나 金山寺 義靜律師의 戒壇에 나아가 具足戒를 받았다. 이에 계율의 구슬이 밝고 법의 그릇이 깊고 맑아 가만히 있는 것을 싫어하고 옷깃을 떨쳐 멀리 가서 널리 善知

識을 찾아 깊은 이치를 더욱 탐구하였다. 龍德 2년(922) 여름에 특별히 彌勒寺의 탑을 여는 은혜를 입어 禪雲寺의 選佛場에 나아가 법단에 올라 법을 설하니 천상의 꽃이 이리저리 날렸다. 이로 말미암아 도의 영예가 더욱 드러나 책을 읽어 지고 오는 자가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그때 신라 景哀大王이 芬皇寺에 주석하기를 청하며 자주색 비단과 屈眱과 梅檀香과 寶器 등의 물건을 하사하였다. 天成 4년(929)에 敬順大王이 대사에게 명하여 靈廟寺 法席으로 옮기도록 하고 戒壇을 만들고 佛塔을 장식하여 7일 동안 법회를 개설하였다(「泰安 葛陽寺 惠居國師塔碑」)⁶⁴).

D-2. 太傅王께서 의원을 보내 문병하시고 과발마를 내려 齋를 지내도록 하셨다. 中正·公平하게 정무를 보시느라 여가가 없으시면서도, 능히 시종 한결같으셨으니, 보살계를 받은 불자요 建功鄉의 수령인 金立言에게 특별히 명하여, 외로운 여러 제자들을 위로하게 하고 ‘智證禪師’라는 시호와 ‘寂照’라는 탑호를 내리셨다. 이어 비석 세우는 것을 허락하시고, 대사의 행장을 적어 아뢰라 하시니, 문인인 性鑄·敏休·楊孚·繼徽 등은 모두 글재주가 있는 사람들인지라, 묵은 행적을 거두어 바쳤다. (…중략) 芬皇寺의 중 慧江이 나이 83세에 글씨를 쓰고 아울러 글자를 새기다. 원주인 대덕 能善·通俊, 都唯那인 玄逸·長解·鳴善, 또 시주로서 碣을 세웠으며 西□大將軍으로 紫金魚袋를 착용한 蘇判 阿叱彌, 加恩縣將軍 熙弼, 當縣(마멸). 龍德 4년(924) 歲次 甲申 6月 日에 건립을 마치다(「聞慶 鳳巖寺 智證大師塔碑」)⁶⁵).

64) 乾化甲戌春 往牛頭山開禪寺 謁悟心長老 請歸佛 長老嘉愛 爲之薙染 時年十六 越三年 就金山寺義靜律師戒壇受具 於是 戒珠明朗 法器泓澄 雅厭匏繫 振衣遐舉 博訪知識 益究玄乘 龍德二年夏 特被彌勒寺開塔之恩 仍赴禪雲選佛之場 登壇說法時 天花繽紛 由是道譽彌彰 負笈者雲趨 時新羅景哀大王 請住芬皇寺 賜紫羅屈眱梅檀香寶器等物 天成四年 敬順大王命師移住靈廟寺法席 築戒壇 飾佛塔 設法會七日(崔亮, 「泰安 葛陽寺 惠居國師塔碑」, 정병삼, 1996, 『譯註羅末麗初金石文』 上, 혜안, 341~345쪽).

65) 太傅王馳醫問疾, 降駟營齊. 不暇無偏無頗, 能諧有始有終. 特教菩薩戒弟子建功鄉令金立言, 慰勉諸孤, 賜諡智證禪師, 塔號寂照. (…중략) 芬皇寺釋慧江 書并刻字 歲八十三. 院主 大德能善·通俊. 都唯那等 玄逸·長解·鳴善. 且越成碣 西□大將軍 着紫金魚袋 蘇判 阿叱彌·加恩縣 將軍熙弼, 當縣□刀淬治□□□于德明. 龍德四年 歲次甲申 六月 日 竟

D-1는 후백제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惠居國師(899~974)의 비문 일부이다. 혜거는 알려져 있듯이 후백제 정권과 깊은 관련이 있는 승려로 알려져 있다.⁶⁶⁾ 그리고 그는 후백제와 신라의 교류를 증명하는 인물로 지적되고 있다.⁶⁷⁾ 혜거는 금산사에서 이름을 날리다가 922년 경애왕의 초빙을 받아 분황사에 주석하게 된다. 당시 신라는 후백제의 군사적 우세에 시달리고 있었으나 또 다른 방면으로는 고려가 경북 지역에 대한 회유정책을 지속적으로 펴고 있었다. 특히 下枝城의 장군이 元達을 시작으로⁶⁸⁾ 고려가 신라 내륙으로의 진출을 계속해서 확대하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라는 고려와의 우호를 통해 후백제를 견제하고자 하였으며, 후백제와의 마찰을 최소화해야 했다. 즉 혜거의 신라 이동은 후백제가 그로 하여금 신라와의 우호를 상징하는 매개로서 파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혜거는 芬皇寺의 주지로 파견되었는데 지증대사 도현의 비문인 D-2에서 그의 활동을 통해 당시 신라와 후백제와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 혜거가 분황사의 주지로 있던 때인 924년에 지증대사 도현의 비문이 봉암사에 입석되었다.

도현은 앞서 언급했던 양부의 스승이다. 건훤의 측근으로 활약했던 양부는 904년 공주가 궁예에게 내항하자 906년에 함천의 伯巖寺로 이동하여 916년에 입적할 때까지 기거하였다.⁶⁹⁾ 백엄사는 대야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였는데 양부를 이곳에 주석시켜 대야성 주변의 세력을 포섭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양부가 입적한 뒤 927년에는 그의 제자인 궁양이 이곳에 주석하게 되는데, 그 또한 양부와 마찬가지로의 목적으로 파견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도현의 제자였으나 반란 세력 우두머리의 고향이자, 후백제 정권과 깊은 관련이 있던 양부가 함께 남긴 행장을 신라 조정에서 선뜻 담비를 입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는 아마도 후백제와 신라의 교류를 대외에 보이고자 하는 의미로 해당 비문이 입석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당시 분황사의 주지였던 혜거를 통해 건훤이 신라와의 우호를 표시하고 자신을 옹위하던 양부를 비롯한 회양산문 계열의 선승들이 신라 왕실로부터 인정받게 되었음을 보

建(崔致遠 撰. 『聞慶 鳳巖寺 智證大師塔碑』, 남동신, 1996, 위의 책, 266~269쪽).

66) 許興植, 1986, 앞의 책.

67) 許興植, 1986, 앞의 책, 592~593쪽. 이에 반해 김수태는 혜거가 신라로 진출한 것은 건훤이 초기에 표명했던 금산사를 중심으로 한 진표의 미륵신앙과 단절하고 익산 미륵사 중심의 미륵신앙을 강조하게 된 것이라 보고 있다(金壽泰, 2000, 앞의 책, 64~65쪽).

68) 『三國史記』 卷12, 新羅本紀12 景明王 6년(922) 정월.

69) 『三國遺事』 卷3, 塔像 伯巖寺 石塔 舍利.

이고자 했던 의도가 반영되었을 것이다.

이는 공양의 행적을 통해 엿볼 수 있다. 공양은 중국 유학 뒤에 924년 전주 禧安縣으로 귀국하였다. 그는 귀국한 뒤부터 백업사에 주석하게 되는 927년까지 약 3년간 전주에서 주석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주로 귀국한 뒤에 백업사에 주석하기 전까지 다른 곳으로의 이동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전주에서 양부와 마찬가지로 견훤의 측근 선승으로서 활동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리고 927년에 스승인 양부가 주석하던 백업사에 주석하게 된다. 공양이 백업사에 주석하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로 견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백업사에 주석하면서 경애왕과도 접촉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경애왕은 공양에게 奉宗大師라는 별호를 주면서 그를 우대하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견훤은 신라 왕실과 불교계 인사들을 교류시키면서 그 권위를 이용하고자 했다. 당시 견훤은 대야성 침공 이후 외교적 고립과 불교계의 동향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았음을 포착했을 것이다. 그렇기에 견훤은 신라와의 교류를 통해 자신에 대한 불교계에서의 좋지 않은 모습들을 걷어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이러한 견훤의 대신라 관계 개선은 신라를 두고 고려와의 대결이 불가피하던 후백제 입장에서는 결코 지속적일 수 없었을 것이다.

특히 후백제는 대야성 함락 이후 신라로의 진출에 온 국가의 역량을 집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라와의 관계 악화는 필연적이었다. 이는 925년에 曹物城에서 고려가 후백제와 두 번째로 대치하게 된 뒤 화친을 맺게 된 뒤에 경애왕이 왕건에게 보낸 사신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경애왕은 견훤이 변덕이 심하고 속임수가 많다고 하고 있는데⁷⁰⁾ 이러한 기록은 신라와 후백제와의 우호적인 관계가 지속되지 않았음을 반증하고 있다.

이외에도 견훤은 동리산문 출신인 洞眞大師 慶甫(869~948)를 포섭하였다. 921년에 귀국한 경보는 전주의 南福禪院에 주석하게 되지만 이후 본사인 광양의 玉龍寺로 돌아간다. 경보는 동리산문의 또 다른 세력이었던 泰安寺의 廣慈大師 允多(864~945)가 왕건이 즉위한 뒤에 연결되자⁷¹⁾ 이들을 회유하기 위해 그를 적극적으로 포섭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⁷²⁾

70) 『高麗史』 卷1, 世家1 太祖 8년(925) 10월 16일 을해.

71) 徐珍教, 『高麗太祖의 禪僧包攝과 住持派遣』; 洪承基 編, 1996, 『高麗太祖의 國家經營』, 서울대학교출판부, 371쪽.

72) 曹凡煥, 2013, 앞의 책, 215~216쪽.

이는 경보가 귀국하기 전해인 920년에 康州의 장군인 閔雄이 고려에 항복한 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된다. 윤웅이 항복하고 선승인 윤다마저 고려와 연결되자 동리산문과 연관되어 있던 승평을 비롯한 지역이 동요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보를 옥룡사에 주석시켜 승평 지역을 안정시키고 나아가 강주 지역을 잠식해오는 고려에 맞서고자 했을 것이다.

그런데 기존에는 건훤이 경보를 국사 혹은 王師로 삼았다고 보고 있다.⁷³⁾ 그렇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건훤이 경보를 국사로 삼았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건훤은 후백제의 왕을 칭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는 대외적으로 新羅西面都統이었으며 형식적으로나마 신라왕의 신하였다. 이는 경보의 비문에서 건훤이 제자의 예를 다하였다는 것을 확대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신라는 이미 허울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으나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후백제가 취한 선승 관련 정책에 관해서는 신라와 밀접한 관련을 보이고 있다.

특히 후백제 영역은 그 어느 곳보다 선종 산문이 지역별로 융성한 곳이었다. 건훤이 하나의 산문을 우대하여 국사로 책봉하게 된다면 다른 산문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경보는 국사가 아니라 건훤의 특별한 존경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건훤과 산문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그는 선종에 대한 권위가 아직까지 신라 왕실에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던 것 같다.

이는 927년 건훤이 慶州에 침공하여 경애왕을 피살한 뒤 敬順王을 옹립한 뒤의 상황에서도 알 수 있다. D-1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929년에 경순왕은 혜거를 영묘사에 주석시키고 법회를 주관하도록 하였다. 929년은 건훤의 세력이 고려를 격파하고 맹위를 떨쳤을 시기였다. 건훤과 깊은 관련이 있었던 혜거에게 법회를 주관하게 한 것은 당시 후백제에 예속되어 있었던 신라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후백제가 신라 왕실을 없애지 않고 경순왕을 옹립한 것은 고려와의 전투가 임박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다. 그보다 후백제가 신라 왕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이 선종 산문에 대한 지배력을 직접적으로 뻗을 수 있는 이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후백제의 압도적 우세는 930년에 고창전투를 통해 꺾이게 되고 신라는 도리어 고려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게 된다. 신라 왕실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되자 후백제는 선종

73) 허흥식은 건훤이 경보를 대할 때 제자라 하고 避席한 것을 들어 그를 왕사 혹은 국사라고 파악하였다(許興植, 1986, 앞의 책, 358쪽).

계에서 빠르게 힘을 잃어 갔을 것이다.

특히 935년 견훤이 폐위된 후 고려에 귀부하게 되자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된 것으로 보인다.⁷⁴⁾ 후백제의 구심이었던 견훤이 사라지게 되자 그를 따랐던 선종 세력들이 이탈하게 되었으며 이는 후백제가 일리천에서의 전투 이후 빠르게 멸망하게 되는 요인 중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5. 맺음말

이상으로 후백제의 선승 정책과 그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맺음말은 본고를 요약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후백제는 신라의 지방 세력이 할거하던 시점에 견훤에 의해 서남해를 비롯한 무진주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그 과정에서 지역에 기반이 확고했던 선종 산문들을 회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당시 견훤은 ‘新羅西面都統’으로 활동하며 자신이 반란군이 아닌 신라의 지방관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를 표명하기 위해 신라 왕실의 존숭을 받았던 절종과 심회를 초빙하여 자신의 정권 안정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고향인 상주 지역 봉암사의 선승인 양부와 같은 선승을 초빙하여 측근의 선승들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견훤은 단기간에 세력을 정비하고 국가를 선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후백제가 국가를 세운 뒤 신라로의 진출은 예정된 일이었다. 그렇기에 901년 전격적으로 대야성을 침공하지만 실패하고 만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금성에 대한 약탈이 진행되고 903년 금성은 궁예정권에 내속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견훤은 유학에서 돌아온 선승들을 적극적으로 포섭하고 서남해의 주요한 지역에 주석시켜 세력 이탈을 막고자 하였다. 나아가 여전히 신라 왕실과 관계를 맺고 있던 선종 산문을 자신의 영향권에 놓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909년 시작된 태봉과 서남해를 두고 벌인 공방전에서 견훤이 주석시켰던 선승들이 도리어 왕건에게 포섭되면서 후백제는 서남해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 시기 견훤은 운거도응의 제자들과 관계를 맺고 후백제 내에 위치하고 있던 산문 세력을 아우르고자 하였으나 서남해에서의 전쟁 여파로 이러한 계획이 무산되고 만다. 결국 견훤의 선승 정책은 후백제가 성립되는 단계에서

74) 궁양은 935년에 백암사를 떠나 문경의 봉암사로 거처를 옮기게 된다. 그가 봉암사로 거처를 옮기게 된 배경에는 견훤의 폐위가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더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된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918년 궁예가 피살되고 왕건이 정권을 장악하고 고려를 성립하게 되면서 후삼국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후백제는 군사적 우위를 앞세워 920년 대야성을 침공하여 함락하여 진례군까지 진격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봉림산문을 비롯한 여러 선승들이 진례를 떠나 고려에 귀부하는데 이를 통해 견훤이 외부의 산문 세력을 포섭하는 것에 적극적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의 견훤은 외부 선종 세력에 대한 포섭보다는 신라 왕실과의 제휴를 통해 선종계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세우고자 노력하였다.

견훤은 자신의 측근 승려였던 혜거를 통해 신라 왕실에 접촉하여 자신의 측근 선승들이었던 회양산문 계열의 선사들의 스승인 지증국사비를 입석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지증국사비를 세움으로써 자신의 측근 선승들의 권위를 높여 이를 선종 세력들에게 과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후백제는 후삼국 쟁패 과정에서 신라로의 진출은 필연적이었기 때문에 양국의 우호 관계는 상황에 따라 달랐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견훤의 행보를 보면 후백제는 신라 왕실의 권위를 이용하여 선종 세력을 아우르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927년 경애왕 피살과 경순왕 옹립, 그리고 혜거의 영묘사 주석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견훤은 신라 왕실을 이용하여 자신이 선종 세력의 새로운 구심이 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여겨진다.

논문접수일: 2021. 11. 30. / 심사개시일: 2021. 12. 01. / 게재확정일: 2021. 12. 03.

참고문헌

한문원전자료

-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新增東國輿地勝覽』
『景德傳燈錄』
『無竟集』
『南原 實相寺 秀澈和尚塔碑』
『康津 無爲寺 先覺大師塔碑』
『長湍 五龍寺 法鏡大師塔碑』
『砥平 菩提寺 大鏡大師塔碑』
『寧越 興寧寺 澄曉大師塔碑』
『聞慶 鳳巖寺 智證大師塔碑』
『泰安 葛陽寺 惠居國師塔碑』

단행본

- 金杜珍, 2007, 『신라하대 선종사상사 연구』, 일조각.
金壽泰, 2000, 『후백제와 견훤』, 서경문화사.
김혜완, 2002, 『고달사지 I』.
申虎澈, 1993, 『後百濟 甄萱呈券研究』, 일조각.
李基白, 1986, 『新羅思想史研究』, 一潮閣.
이병도, 1996, 『역주 삼국사기』 하, 을유문화사.
이영문, 조근우, 1995, 『月南寺址』, 木浦大學校博物館·康津郡.
李智冠, 1994a,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高麗篇1, 伽山文庫.
_____, 1994b,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高麗篇2, 伽山文庫.
趙仁成, 2007, 『태봉의 궁예정권』, 푸른역사.

- 曹凡煥, 2001, 『新羅禪宗研究』, 일조각.
 _____, 2008, 『羅末麗初 禪宗山門 開倉 研究』, 京仁文化社.
 _____, 2013, 『羅末麗初 南宗禪 研究』, 일조각.
 한국역사연구회, 1996, 『譯註羅末麗初金石文』上, 혜안.
 洪承基 編, 1996, 『高麗 太祖의 國家經營』, 서울대학교출판부.

논문

- 具山祐, 2008, 「신라말 고려초 김해 창원지역의 호족과 鳳林山門」, 『韓國中世史研究』 25권, 157-193쪽.
 김용선, 2006, 「玄昱·審希·璨幽와 여주 고달사」, 『한국중세사연구』 21권.
 金英美, 2006, 「10세기초 禪師들의 중국 유학」, 『梨花史學研究』 33권, 1-26쪽.
 남동신, 2005, 「나말려초 국왕과 불교의 관계」, 『역사와 현실』 56권, 81-111쪽.
 朴貞柱, 1994, 「新羅末·高麗初 獅子山門과 政治勢力」, 『眞檀學報』 77호, 1-36쪽.
 변동명, 2009, 「신라말·고려시기의 和順 雙峯寺」, 『역사학연구』 37권, 1-32쪽.
 裴幸勳, 2009, 「片雲和尚浮圖를 통해 본 實相山門과 甄萱政權」, 『百濟研究』 50권, 201-235쪽.
 _____, 2011, 「건훤의 군사적 기반」, 『新羅文化』 36권, 167-201쪽.
 신호철, 2016, 「高麗 건국기 西南海 지방세력의 동향—羅州 호족의 활동을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 58권, 1-32쪽.
 李仁在, 2005, 「선사(禪師) 공양(兢讓; 878~956)의 생애와 대장경(大藏經)」, 『韓國史研究』 131호, 165-190쪽.
 趙仁成, 1996, 「彌勒信仰과 新羅社會—眞表의 彌勒信仰과 新羅末 農民蜂起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眞檀學報』 82호, 35-52쪽.
 崔炳憲, 1978, 「羅末麗初 金海地方의 豪族勢力과 禪宗」, 『韓國史論』 4집.
 최연식, 2011, 「康津 無爲寺康津 無爲寺 先覺大師碑를 통해 본 弓裔 행적의 재검토」, 『목간과 문자』 7호, 203-222쪽.
 허인욱, 2016a, 「後百濟의 對중국 교류 연구」, 『사학연구』 122호, 39-77쪽.
 _____, 2016b, 「井邑 山內 龍藏寺 관련 기록의 검토—後百濟代 창건을 중심으로—」, 『전북사학』 48호, 31-58쪽.

<Abstract>

A Zenist Policy of the Hubaekje Gyeon Hwon Regime

- Gyeon Hwon's Recruitment of Zenist and His Intention -

Kim, Sung-bea*

Gyeon Hwon established a power based on the southwest sea amid the turmoil of the later three Kingdoms, and based on this, established a country encompassing all areas of Jeolla-do and parts of Chungcheong-do. The Hubaekje Kingdom regime established by him was powerful among the early powers of the Later Three Kingdoms and was the first to lay the foundation for power. In particular, in the process, Zen Sanmun, which was flourishing in the southwest sea area, were actively embraced and used. The securing of Gyeon Hwon's Zen sect specifically led to the recruitment of Zen monks, which can be cited as a major factor in the establishment of the Hubaekje Kingdom.

Studies related to the Zen of Hubaekje have been conducted with studies on the Later Three Kingdoms. However, due to the lack of feed, research tends to be conducted fragmentarily. In addition, since research related to Zen sect had to rely mainly on Zenist monuments, the focus is on research focused on the life history of Zenist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forces or the king. In this trend, the study of Zen monks related to Gyeon Hwon was also mainly discussed about the consideration of Zen monks and prose, and the consideration of Gyeon Hwon was secondary.

This paper aims to overcome this research trend, understand the relationship with Zen monks from Gyeon Hwon's point of view, and furthermore, to find out how he is related to the Zen monks policy of Hubaekje's Zen monks policy. The area of the southwest sea, where Gyeon Hwon became the basis for self-reliance, was an area where Zen's prose was located from an early age. And because they grew up with the support of the Silla royal family, Silla's influence still remained.

Zen prose was one of the important forces not only in Hubaekje but also in the Later Three Kingdoms. Finding out what kind of relationship Gyeon Hwon

* Associate researcher, Research Institute of Buddhist Cultural Heritage

had with Zen was linked to the situation of Hubaekje at the time. In particular, since the intention of Gyeon Hwon, the subject who had a relationship with the Zen monk, is deeply related to the Zen monk policy of Hubaekje, the relationship with the Zen monk was considered centering on Gyeon Hwon. Through this, I would like to clarify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Gyeon Hwon's succession policy.

Key Words : Gyeon Hwon, Hubaekje, Later three Kingdoms, Zen monk, Wang Geon, Samuweidaesa, Silla

